

새로 나온 책

▶초월과 자기-초월(메를로 웨스트폴 지음, 김동규 옮김)=하이데거의 존재-신학 비판과 타자의 차이를 존중하고 보존하려는 일반적인 포스트모던적 관심에 대해, 저자는 인간의 자기-초월의 방식과 관련해서 신의 초월을 다시 생각하고자 한다. 저자의 작업은 존재-신학 비판, 타자성의 중요성, 탈 중심화된 자기, 그리고 자율적인 초월적 자아에 초점을 맞춘다. 갈무리, 3만원.

▶통속이 붉다 한들(최재영 시집)=총 4부로 구성된 시집을 관통하는 색은 '붉음'이다. 붉음은 갈등을 상징하는 동시에 사랑을 나타낸다. 치기어린 미성숙을 그리다가도 완숙을 묘사하는 색 붉음은 시의 어구마다 등장하며 삶에 대한 작가의 고뇌를 담아낸다. 최재영 시인은 "시는 내게 있어 따로 망명이고 방황이었으나 또한 가열차게 응시하고 맹렬하게 외로웠음을 고백하는 나의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시산책, 1만원.

▶처음 만나는 미술사 수업(김민정, 김성규, 조혜원, 한충희 지음)=미술사를 중심으로 감상에서 창작까지, 30가지 수업 활동을 소개하는 초등미술 수업 안내서. 이 책은 초등 교사들이 함께 연구해 미술 교육과정에 맞게 재구성하고 실제 수업에 적용한 결과물이다. 아이들이 미술과 가까워지고 예술 감성을 키우는 데 관심 있는 교사와 학부모에게 유용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학교도서관저널, 1만8000원.

▶공격 사회(정주진 지음)=장애, 참사 피해자, 빈곤, 난민, 노동조합, 외국인 노동자, 탈북민, 기후변화, 젠더 갈등 등 아홉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피해자와 약자에 대한 공격과 혐오가 왜 일어나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살펴본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약자와 피해자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분노와 적대감은 사회의 불공정과 부정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정당한 분노 표현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철수와영희, 1만7000원.

▶오늘부터 저학년 학부모입니다(송유진, 최지원 지음)=현직 초등 교사인 두 저자가 실제 학부모 상담에서 받는 질문을 모아 학부모가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주제를 추렸다. 생활 습관, 학습 습관, 학습 습관, 교육 관계, 부모-자녀 관계, 성격, 진로 등 저학년 학부모라면 한 번쯤 궁금해할 만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다. 관심 주제별로 글을 찾아 읽으면서 필요한 조언을 얻을 수 있다. 청어람M&B, 1만5800원. 강다혜기자

이 책!

『종이 위의 직관주의자』



우리 안의 길들여지지 않은 창조성을 깨우는 방법

“우리는 누구나 창의성을 발휘하며 살아간다. 뿐만 아니라 예술가적, 디자이너적 자질도 갖추고 있다. 매번 형태가 달라지는 엄마가 잔 목도리처럼, 능숙하게 형광등 전구를 교체하던 아빠의 손재주처럼 익숙한 것을 거부하고 새로운 것을 찾고, 일상의 결집을 스스로 해결하며 행복해지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프롤로그 중)

오랫동안 디자인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많은 작업을 해온, 세계 굴지의 자동차 회사에서 활동한 20년 경력의 자동차 디자이너 박찬휘는 책 ‘종이 위의 직관주의자’(싱크 펄브)에서 디자인이란 그저 일상의 어떤 부분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경험이고, 전혀 거창한 것도 아니며, 그렇게 오히려 더 가치 있는 생각의 방식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일상의 어떤 부분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경험처럼, 디자인은 전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외려 조출한 생각의 방식”(프롤로그 중)이라고 말하는 그는 디자인을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본질적으로 “단순하고 사소한 생각”이며 “일상의 일”이라고 설파한다. 그가 의미하는 디자인이란 창의성과 상상력을 일상과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것에 이르는 일인 것이다.

다시 프롤로그의 글을 옮겨 “우리는 누구나 창의성을 발휘하며 살아”가기에 저자는 “우리는 모두 디자이너”라고 주장한다. 그의 말마따나 만들 때마다 모양이 달라지는 손뜨개처럼 익숙한 것을 거부하며 새로운 것을 찾는 사람들, 고장 난 물건을 수리하며 일상의 결집을 스스로 해결하고

행복해지는 사람을 디자이너라고 한다면, 우리가 디자이너가 아닐 이유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저자는 책에서 우리 안에 깊이 머문 감각과 경험을 통해 길들여지지 않은 창조성을 깨우는 방법을 조언한다.

출판사는 “저자는 종이 위에서 자유롭게 노는 방식으로 누구나 직관주의자가 될 수 있다고, 우리 안에 잠재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한다”며 “‘종이 위의 직관주의자’는 디자인의 본질과 일상을 새롭게 하는 창의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책”이라고 소개한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공감과 교감이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깨닫고,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건드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힘의 원리를 궁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1만8800원.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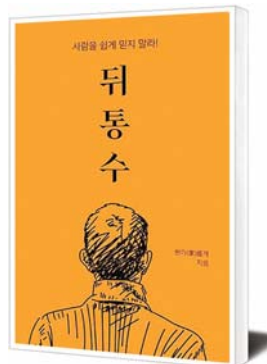


그러므로 디자인은 일상의 일이다.

...
엄마도 아빠도 친구도
여러분도 일상의 주체,
세상의 모두가 디자이너다.
- 프롤로그 중 -

뒤통수 맞지 않고 삶의 주인공으로

한가(家)롭게의 ‘뒤통수’



‘뒤통수’(한가롭게 펴냄)는 저자가 직장생활과 소규모 사업을 해 나가면서 겪었던 경험과 각종 애환, 일과 인과관계에 대한 기대와 실망에 관한 이야기를 유니버스 형태로 구성한 자기계발형 에세이다.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직장인, 사업자,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이들이 뒤통수를 맞거나 실패, 시행착오를 줄이고 부와 행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저자의 마음이 담긴 책이다.

크게 6장(▷1장 뒤통수, 절대 사람 쉽게 믿지 마라 ▷2장 인생은 끊임없는 뒤통수의 연속이다 ▷3장 직장 고민, 직장생활과 뒤통수 ▷4장 MZ와 함께 호흡하고 ‘탈핀대’하라 ▷5장 소소한 뒤통수 이야기들 ▷6장 그렇다고 뒤통수만 맞을 순 없잖아!)으로 구성된 책엔 저자가 과거 교류했던 성공한 경영자와 리더의 자기관리와 관련된 내용들도 일부 수록됐다.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뒤통수를 맞고 많은 후회와 깨달음을 얻게 된 것도 어찌 보면 주도적으로 자기 삶을 이끌어 가지 못하고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신경을 쓰고 남에게 의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한다. 그리고 “남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평을 듣기 위해서 내면의 나에게 항상 뒤통수를 치면서 살아왔었다”며 “이제부터라도 과거에 잘못했거나 후회가 되었던 일들, 사람, 관계 등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이 삶의 주인공이 되는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려 한다”고 말했다. 1만6800원.

오은지기자

신당을 소재로 한 인문학적 성찰

하순애의 ‘제주도 신당 이야기’ 재출간



지난 2008년 제주대학교출판부에서 발간된 ‘제주도 신당 이야기’가 새 옷을 입고 다시 돌아왔다.

최근 재출간된 개정판 ‘제주도 신당 이야기’(하순애 지음, 한그루 펴냄)는 초판의 내용을 유지하면서 만들새만 새로이 했다. 초판 발간 후 여러 해가 지나 최근의 변화상을 반영할 필요가 있겠으나, 신당을 소재로 한 인문학적 성찰이라는 기존 내용만으로도 독자에게 의미 있는 책이라는 점, 또 내용을 보충하는 것이 자칫 전체 글의 결을 흐트리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속학자나 구비문학 전공자들과는 달리 철학자의 시선으로 제주의 신당을 바라본 저자는 11장으로 구성된 책에 40여 곳의 제주 신당을 34쪽의 이야기로 풀어놓았다.

신당을 관찰하고 그에 얽힌 특별한 서사들을 살피지만 그것은 제주인의

삶과 문화, 즉 사람살이와 세상살이에 대한 성찰을 풀어내기 위한 것이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신당이 씨줄이라며 낱줄은 제주인의 삶과 문화 그리고 역사”라며 “말하자면 이 책은 시간과 공간, 문화와 역사, 신화와 신앙, 욕망과 상징 등에 관한 인문학적 성찰을 신당을 소재로 삼아 이야기로 풀어놓은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이 책이 당신앙과 신화가 살아 있는 제주문화에 접근하는 하나의 통로이기를”, “사람살이, 세상살이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바람도 전했다. 2만원.

오은지기자

승진 축영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건강실장



강 동 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균형추진단장



이 창 민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장



임 영 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장



정 맹 철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장



이 경 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정책연구팀장



김 선 주

승진 및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재 제주시 대정정우회 회장 송진권 외 회원 일동